

팍팍한 中企... 보증사고 급증

장기불황에 이자도 못내...광주신보 전년보다 11% ↑ 대위변제 358억원 재단 부담 가중...전남도 상황 비수

지역경제의 장기불황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값을 여러마져 없어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증기관의 변제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9월) 빚을 갚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4509건에 금액만 531억원이나 됐다. 지난해에

만 신청된 보증채무이행청구는 1663건으로 2015년(1502건)보다 161건, 비율로는 10.7% 증가했다.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해 재단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은 이른바 대위변제(代位辨濟)건수 역시 같은기간 3831건으로 358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대비 대위변제 건수 비율도 85%에 달해 보증사고가 난 10건 중 9건가량은 재단이 빚을 갚아줬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광주신보는 채무감면 회수 권

페인 실시와 구상실익이 없는 특수채권은 추심전문기관에 위임해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또 채무자 상환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채무감면과 신용회복을 조기 지원하고 은닉재산 파악, 채권보전조치 강화 등 강·온책을 구사할 계획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보증사고나 대위변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15년 3.10%와 2.34%에서 올해는 3.96%와 2.50%로 급증했다.

광주신보의 보증 건수는 올 9월 기준 2670억원, 지난해는 3568억원이었다. 현

재 보증 잔액 규모는 3만6312건에 금액은 5947억원이다.

전남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값을 여러마져 없어 중소기업 중심으로 보증채무를 못갚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용보증 대상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고, 보증사고가 잦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나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523.43 (+21.50)
- ↑ 금리 (국고채 3년) 2.16% (+0.03)
- ↑ 코스닥 694.20 (+4.52)
- ↓ 환율 (USD) 1120.40원 (-4.20)

신바람 코스피 '2600' 가시권

한·중 관계 개선 등 호재...21.50P 올라 2523.43 기록 행진

코스피가 지난 31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째 증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1.50포인트(0.86%) 오른 2523.43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 세운 기존 증가 최고치 기록 2501.93을 20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것이다.

전날 사상 처음 2,500선을 넘기며 마감한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1.72포인트(0.07%) 내린 2500.21로 출발했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상승세로 전환, 전고점을 넘어섰고 오후 폭을 더 키워 2520대에 안착했다.

장중 한때는 2528.32포인트까지 치솟아 역시 전날 나온 장중 최고치 기록(2513.87)도 다시 썼다.

코스피는 지난 26일 하루를 제외하고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무서운 상승세를 과시했다.

코스피가 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642조2850억원)도 하루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한국·중국 관계 개선,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정책 발표가 투자심리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379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3일 연속 '사자'에 나서며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개인은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 188억원어치를 팔았고 기관은 3959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4.52포인트(0.66%) 상승한 694.20으로 장을 종료했다.

전날 소폭 하락했던 지수는 전장보다 1.39포인트(0.20%) 오른 691.07로 출발해 이상향 흐름을 보이며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었다. /김대성기자bigkim@

삼성전자 반도체 타고 날다

매출 20조·영업익 10조·영업이익률 50% '트리플 크라운'

삼성전자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수퍼 호황'에 힘입어 올 3분기에 다시 매출·영업이익·순이익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은 매출 20조 원, 영업이익 10조원에 육박한 동시에 영업이익률 50%를 돌파해 '신기원'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7~9월 연결 기준 확정 실적으로 매출 62조5000억원, 영업이익 14조530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31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5조2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던 전분기의 14조7000억원마저 넘어서면서 한 분기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사업별로는 반도체 부문에서 9조96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체 영업이익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1분기 6조3100억원, 2분기 8조3100억원에 이어 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써냈다. 지난해 3분기에는 3조465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전방 광주공장 "면사 생산 중단...환경 개선"

면 방직업체인 전방은 광주공장의 면사 및 면혼방사 생산을 중단한다고 지난 31일자로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생산 중단 사유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 집중화를 통한 비

효율성 및 효율성 증대 도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영암공장으로 일부 설비 이설 후 생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전, 모로코서 수출촉진회

북아프리카 판로 확대...참여 中企 1만4483만달러 상담 실적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알제리와 모로코에서 한국전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 및 KOTRA(사장 김재홍)와 함께 협력중소기업 10개사와 북아프리카 지역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촉진회를 개최했다.

한전은 이번 수출촉진회 기간 동안 전력 신기술 세미나를 열고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여 한전의 마이크로그리드, S-CADA, DAS 등 전력 신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기술과 제품을 홍보했다.

한편, 수출촉진회 참여 중소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총 91건의 상담을 통해 1만4483만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

인텔전기전자(주)는 알제리 5개 전력

회사와 차단기(LBS) 등 3600대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협상을 진행하는 등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한 청신호를 밝혔다. 특히,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에서는 태양광, ESS 등 신재생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전산업진흥회와 함께 모로코의 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협회(FENELEC)와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해외시장 수출 판로를 동반 개척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마련하여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한전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알제리와 모로코에서 북아프리카 지역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촉진회를 가졌다. 알제리 수출촉진회에서 한전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광주 광공업 생산 전년비 13.4% '쑥'

전자부품·컴퓨터·자동차 등 늘어...전남은 7.9% '뚝'

지난 9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액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했고 전월대비 7.9%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분야 중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음료 등은 감소했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전기장비 등은 감소했으나, 자동차,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의 증가

에 힘입어 12.8% 증가했다.

9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 식료품, 화학제품 등이 증가했으나 기계장비, 1차금속, 운송장비 등의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2.7% 감소했고, 전월대비 4.0%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기계장비,운송장비, 종이제품 등은 증가했으나 1차금속, 석유정제, 화학제품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2.7%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화학제품, 금속가공, 식료품 등은 증가한 반면 1차금속, 석유정제,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 감소로 15.0%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과징금 두배로

공정위 오늘부터...자진 시정 과징금 강경률 30%→20%로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 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원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 고시에는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됐지만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려간다.

가령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때에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간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